



유선명(백석대)

1. 들어가는 말

고대 이스라엘은 다양한 방식으로 향(incense)을 소비했다. 위생재 혹은 기호재로서의 사용과 더불어 성전 제의와 관련해서도 향이 다채롭게 사용된 것은 고대근동 문화와 종교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패턴을 따르지만, 인접문화와의 종교적 연속성에서 이탈하는 이스라엘 고유의 변용 역시 관찰된다. 본고는 크게 두 영역의 연구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 제의제도와 장치 속에서 향의 사용을 신학화한 궤적을 조사하고자 한다. 첫째는 인류학 분야의 연구이다. 인간의 감각 중에서도 후각은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성이 특출한 감각이어서 그 과학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뒤늦게 발전되었다. 본고는 근래에 들어 활발히 시도된 인류학적 후각연구의 결과물들을 구약 본문에 적용함으로써 향을 사용하는 제사제도와 그 관련현상의 의미를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는 고대근동 연구

www.kci.go.kr

이다. 인접분야 학문들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대근동 문서의 해독과 해석은 여전히 이스라엘 제의 연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본고는 향과 관련된 고대근동 문서 특히 이집트 문서의 분석을 통해 이스라엘의 향 사용에 관해 심층적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2. 냄새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데이빗 하위스(David Howes)는 후각 연구의 한 획을 그은 자신의 논문을 통해 냄새는 “범주 변동(category change)” 혹은 “경계 이동(boundary transition)”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그가 제시한 경계는 심리학적 자아-타자의 구분은 물론, 삶과 죽음의 (불)연속성, 그리고 다수의 종교 제의를 포함한다.¹⁾ 이러한 현상의 기제(mechanism)는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 오면서 음식냄새를 강하게 느끼다가 실내에 머물게 되면 둔감해지는 것과 같은 임계치 저하현상(threshold effect)과 유사하지만, 심리적-상징적 측면에서 보면 두 영역의 경계치에서 후각적 자극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짐으로서 냄새가 경계표(boundary marker)라고 하는 진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후각을 “경계 감각”이라 부른 하위스의 지적은 바로 이 맥락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냄새야말로 다양한 영역들은 물론 경험의 범주들 간에 존재하는 경계선을 구성하는 동시에 그 경계선을 오가며 작동하는 경계 감각의 최고봉(liminal sense par excellence)이라 말할 수 있다.²⁾

경계성과 밀접히 연관된 또 하나의 특성은 모호성이다. 냄새는 색채나 맛이

* 본 연구는 2018년도 백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David Howes, "Olfaction and Transition: An Essay on the Ritual Uses of Smell,"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 Anthropology* 24/3 (1987), 398쪽 이하를 참조하라.

2) Howes, "Olfaction and Transition", 401. 필자의 사역.

상으로 범주로 만들고 언어화하기 어려운 모호성을 지닌다.³⁾ 인도네시아, 벨라네시아, 보르네오 지역 토착민들 중 다수 부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인간으로부터 조상신으로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는데, 이러한 체계에서 막 숲을 거둔 망자의 시체는 인간도 신도 아닌 경계선적 존재가 된다. 그들에게 이 상태는 확실한 이해나 명확한 범주화를 허용하지 않는 모호성의 영역이다. 많은 문화에서 그러하듯 여기서도 불명확한 범주 혹은 범주 간의 중간상태는 위험을 부르는데, 이들 토착민들이 인지하는 사체로 인한 "더러운 구름"은 생물학적 오염만이 아니라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서 망자와 깊이 연관된 사람들과 물건 일체를 엮는 심리적 오염까지 가리킨다.⁴⁾

출산과 관련한 후각 인지방식의 일례로 하위스는 이글루릭 이누잇 사회를 제시한다. 산모와 생리중인 여인들의 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는가에 관한 연구들이 밝혀준 바는, 출산혈 혹은 생리혈의 존재가 시각과 후각 양자에 걸쳐 그들이 인지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⁵⁾ 터너(Victor Turner)의 고전적 격언을 따르자면 "불분명한 것은 부정하다(the unclear is the unclean)"로 요약되는 이 관찰은 더글러스(Mary Douglas)의 레위기 제사제도의 상징성 연구에서 다시금 조명된다.⁶⁾

하위스가 제시한 냄새의 경계이동성에 대해서는 그가 차용하고 있는 켈

3) 색채의 지각과 언어화에 내포된 모호성에 관한 고전적 연구로는 Brent Berlin & Paul Kay,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이 있다.

4) Robert Hertz, "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 of Death", *Death and the Right Hand*, Trans. R. Needham (Glenco: Free Press, 1960). Howes, "Olfaction and Transition", 406에서 재인용.

5) Howes, "Olfaction and Transition", 409.

6)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6). 사회 구성원의 인지구조 내에 굳어진 영역 경계선(boundary)에 관한 더글러스의 논의는 그 함의가 넓지만, 특별히 레위기 제사제도에 관한 그의 분석은 웬햄(Gordon Wenham)의 레위기 주석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79])을 비롯한 후속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Gell)이 유려하게 정리해 준 바 있다. 켈의 설명은 여러 방향으로 확장 가능한 유연성을 갖는다:

색채는 언제나 그것이 담겨있는 물체에 갇힌 죄수의 신세이지만, 냄새는 언제나 그 물체를 탈출한다... 물체로부터 탈출한다는 점에서는 소리 역시 공통점을 갖긴 하나 냄새야말로 그 무형성(formlessness), 정의불가능성(indefinability), 그리고 분명한 규정의 부재(lack of clear articulation)라는 점에서 여타 감각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이다.⁷⁾

여러 감각 중에서도 냄새는 이름을 붙이기가 각별히 어렵다. 만델의 색상표는 복잡한 색상들이 최소한의 기본색상의 배합비율로 계량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맛에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지만 다양한 맛들이 단 맛, 쓴 맛, 짠 맛, 신 맛 등 몇 가지의 기본요소들의 조합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냄새의 경우는 이 두 감각의 경우를 가볍게 뛰어넘는 불확정성과 정의불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다른 냄새를 도출할 수 있는 기본적 냄새가 과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상상력의 산물인 복합적인 향수의 이름은 삶의 열정, 영원한 젊음 등의 막연한 이미지 혹은 자스민, 장미, 사향 등 재료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 아니면 샤넬 No. 5처럼 실험제품의 특정한 인식번호로밖에 지칭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⁸⁾ 물론 특정한 향수가 정밀한 계측장비에 의해 다양한 화학물질의 특정한 배합으로 분석, 환원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후각차원에서의 분해와는 본질상 다른 궤적에 속하는 작업이며,

7) Alfred Gell, "Magic, Perfume, Dream ...", 27; Howes, "Olfaction and Transition", 408에 재인용. Gell은 후각의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냄새는 물질이기보다 오히려 개념에 가깝다는 다소 과격한 명제를 제시한다 (Gell, "Magic, Perfume, Dream ...", 28. 하위스의 글 401쪽에 재인용).

8) 특정한 냄새를 지칭하는 명확한 형용 체계를 가진 문화권의 관찰보고가 있으나, 현재까지도 냄새의 체계적 분류와 명명은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보인다. 전문학술기사를 쏙 빼 있게 정리, 인용한 아래 기고문을 참조하라. Ed Yong, "Why Do Most Languages Have So Few Words for Smells?", *Atlantic* (November 6, 2015). 온라인 링크는 <https://www.theatlantic.com/science/archive/2015/11/the-vocabulary-of-smell/414618/>

겔이 말하는 정형불가능성과 무관한 일이다. 아래 지면에서 우리는 후각이 갖는 이러한 특성과 그 함의를 적용해 고대근동 문헌과 구약 성서에 나타난 향(incense) 사용의 심층적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3. 고대근동에서의 향 사용

1) 방향제

이집트인들은 일상에서 방향기능을 가진 재료들을 다양하게 사용했다. 이집트 문헌에 'ntyw 로 표기되는 몰약(myrrh)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약재나 소독제로 사용되었다.⁹⁾ 향수의 기원은 중동지역 기후의 특성상 불쾌한 체취를 없애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있으며, 탈취 및 소독제와 매혹적 향수를 구별하는 경계선은 매우 애매하다. 19세기 이집트 기록에도 'ntyw와 sntr로 짐과 의복을 소독하고, 구취제거를 위한 껌 형태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¹⁰⁾ 향수 향수 형태로 사용한 것은 이집트 연가(love songs)에 종종 등장하며, 이집트 연가와 연관성이 깊은 아가서에도 남성과 여성의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 향과 향수가 직간접으로 언급된다.¹¹⁾

2) 축귀의 매체

이집트인들이 망자를 애도하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극도로 중요시한 것은 망자는 누구나 사후의 삶을 갖게 된다는 근원적 믿음과 관련이 있다. 이

9) Kjeld Nielsen, "Ancient Aromas", *Bible Review* (June 1991), 28.

10) Kjeld Nielsen, *Incense in Ancient Israel* (VTSup 38: Leiden: Brill, 1986), 12.

11) 이집트연가와 아가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 비교연구는 Michael V. Fox,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고대근동 도상연구(iconography)를 광범위하게 적용한 아가서 해석으로 Othmar Keel, *The Song of Songs* (Continental Commentaries Series: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4)이 유용하다. 아가를 비롯한 구약 시가서에서 물리적 향과 향 이미지의 사용에 관해서는 Richard Hess, "Floral Imagery", Tremper Longman III and Peter Enns(eds.),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Poetry, Wisdom, & Writings* (Downers Grove, IL: IVP, 2006), 218-223의 개관을 참조하라.

집트에서 유래한 사체의 방부처리 방식은 고대세계에 널리 전파되었는데, 주전 6세기에서 5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페니키아 관 비문에도 몰약으로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장례방법이 명시되어 있다.¹²⁾ 시신의 부패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부정(impurity)과 악의 상징이며 향은 그러한 부정을 되돌려 청결함을 회복하고 잡귀를 추방하는 축귀적 효과를 갖는다고 이해되었다:

이집트 제의 가운데 긴 손잡이가 달린 향로에 향을 태우는 의식은 흔히 축귀적 의미를 지녔다. 제의 참여자들은 부정한 잡귀들을 쫓기 위해 엄숙한 의식들이 있을 때는 물론 행진시에도 이러한 휴대용 향로를 지니고 다녔다.¹³⁾

이집트 종교에서 향이 지닌 축귀적 기능은 이스라엘에서도 인상적인 평행점이 발견된다. 전염병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선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민 17:12-13).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서서 이스라엘인들 간에 퍼지는 대재앙을 막아냈다. 물론 죽음의 확산을 막은 것은 야웨 하나님 자신이고 죽음은 귀신과 같지 않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아론의 역할과 행동은 고대근동 특별히 이집트에서 발견된 축귀적 목적에서의 향 사용과 많은 유사성을 보여준다.

3) 기도의 매체

바벨론 종교의 제관이자 예언자인 바루(baru)가 태양신 사마쉬에게 바친 송가에 향료의 사용이 기록되어 있다:

오 사마쉬여! 제 입에 순수한 백향목 진을 담았습니다...

제 입을 씻고 손을 닦았습니다.

12) Nielsen, "Ancient Aromas", 20.

13) Haran, *Temples and Temple-Service*, 240.

순수한 백향목 진을 제 머리털로 싸서,
당신을 위해 다져진 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신들의 무리 가운데 깨끗해졌으니, 심판정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¹⁴⁾

이 본문에서 향의 기능에 대해 닐센은 바루가 인간의 영역에서 신적 영역으로 이동해 스스로 신적인 지위를 점한다고 해석한다.¹⁵⁾ 그러나 이것은 인접 문맥에서 밝히기 어려운 과잉해석으로 보인다. 향의 사용이 신들을 기쁘게 해서 제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 제의의 장에 머물러 있게 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온당한 해석일 것이다. 신들이 향을 좋아한다는 인식이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자주 나타나는데, 일례로 길가메쉬 서시는 대홍수 사건 후에 우트나피쉬팀이 향단에 제사를 바칠 때 신들이 파리메같이 달려들었다고 서술한다(XI 155-161):

그다음에 나는 (모든 새를) 사방으로 내보내고, 제사를 드렸다.
산 정상에서 관제도 부어 드렸다.
제의 용기들을 일곱씩 설치하였고,
냄비 받침대 위에, 식물 줄기, 잣나무, 소귀나무를 쌓았다.
신들이 그 냄새를 맡았다.
신들이 그 달콤한 냄새를 맡았다.
신들이 제주의 주변으로 파리처럼 모여들었다.¹⁶⁾

샤마쉬에게 헌정하는 아수르밧니팔의 기도문에도 신들은 향을 들이킨다는 구절이 있다.¹⁷⁾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 신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존재들이어서 늘 달래주어야 하는데, 향의 사용이 그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14) Nielsen, *Incense*, 32.

15) Nielsen, *Incense*, 31.

16) 길가메쉬 토판 XI 155-161. 한국어 번역은 김구원 외, 「고대근동문학선집」(서울: CLC, 2016), 153을 인용.

17) Nielsen, *Incense*, 30.

있다. 닐센은 이렇게 요약한다:

... 향은 신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향이 불타는 곳에 신들은 모여든다. 향냄새를 맡은 신들은 진노를 거두어들인다. 신들의 마음을 호의적인 태도로 바꾸어준다. 접에서 향은 마치 마약과도 같다. 향을 사용하면 신들이 긍정적인 신탁을 내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준다.¹⁸⁾

훗날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 기도와 향의 병치가 지속하면서 그 둘의 사용은 사실상 기능적 등가성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향은 신과 인간을 잇는 매개물이 되며 따라서 기도와 연관된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양 문명은 향이 기도가 신에게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피라밋 텍스트에 따르면 사제가 찬가와 기도문을 올릴 때는 의례 향을 올리는 제의를 행한다. 메소포타미아 역시 제관의 기도가 향을 동반한다는 기록을 남겼다. 향을 기도와 연결짓는 이러한 상징성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어서, 구약 성서를 이어 유대교에서는 랍비 문헌, 기독교에서는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발견된다(계 5:8; 8:3-4).¹⁹⁾ 구약전승의 진정한 수호자를 자처했던 쿰란 공동체가 공공 기도를 의식으로 정례화(institutionalization)한 현상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올려드리던 향 제사를 계승하는 전개과정으로 볼 수 있다.²⁰⁾

18) Nielsen, *Incense*, 30.

19) 랍비문헌에 나타나는 향의 역할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로 Deborah Green, *The Aroma of Righteousness: Scent and Seduction in Rabbinic Life and Literature* (University Park, PA: Penn State University Press, 2014)를 참조하라.

20) 이 논지의 선구적 연구는 Shemaryahu Talmon, "The Emergence of Institutionalized Prayer in Israel in the Light of the Qumran Literature", *The World of Qumran Within* (Jerusalem-Leiden: Magnes-Brill, 1989), 200-243이다. 제2성전기 유대교의 기도예 대한 포괄적 연구로는 Jeremy Penner, *Patterns of Daily Prayer in Second Temple Period Judaism* (Leiden: Brill, 2012)이 있다.

4. 경계이동의 표지로서의 향—이집트 장례문화의 예

냄새가 경계를 표시하고 따라서 향의 사용이 경계이동을 지시한다는 인류학적 통찰력의 유용성은 죽음과 그에 동반된 장례의식에서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데, 구약 성서의 향 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유용한 비교대상은 정교한 상징체계를 보존한 이집트 장례문화이다.²¹⁾ 향의 사용은 사후세계로의 이동과정에서 중요한 기점들을 표시하는데, 본고에서는 그 기점을 복구(restoration), 변용(transformation), 그리고 여정(journey)라는 세 개의 범주로 정리해본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어느 정도 작위적이지만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죽음과 사후세계로의 이동 전반을 커버하는 작업가설로서의 유용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1) 복구

이집트인들은 죽음의 과정 내내 망자의 정체성이 유지된다고 이해했다. 오시리스(Osiris)의 죽음을 묘사하는 신화에서는 왕의 사체를 미이라로 만드는 의식에 오시리스의 잘린 수족이 회복된다는 상징적 언어가 쓰이고 있다. 아스만(Assmann)에 따르면 실제로 수족을 잘린 적이 없는 왕의 온전한 시체를 놓고 이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이유는 이집트인들이 미이라화(mummification)를 죽음의 역전(reversal)으로 본 데 있다.²²⁾ 미이라화가 단순히 시신의 보존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죽음의 역전 혹은 정복이었다면, 망자의 혼을 달래기 위해 향의 사용이 필수적이었던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21) John Baines, "Society, Morality, and Religious Practice", Byron E. Shafer(ed.), *Religion in Ancient Egypt* (Ithaca: Cornell, 1991), 144.

22) Jan Assmann, "Death and Initiation in the Funerary Religion of Ancient Egypt", William K. Simpson(ed.), *Religion and Philosophy in Ancient Egypt* (New Haven: Yale, 1989), 138.

자신의 ka 앞에서 N (망자의 이름)이 읊어야 할 내용:

오 나의 카(ka), 나를 돕는 자여, 그대를 경배하노라!

보시오, 내가 그대 앞에 왔노라.

깨어나 힘차고 건강하며 웅장한 상태로.

내가 그대를 위해 향을 가져왔나니

그대를 정결케 하고 그대의 맘을 그것으로 정화시키려 함일세.²³⁾

이 본문이 보여주듯 향은 단지 세척 혹은 정화의 기능만 하지 않는다. 향은 곧 생명이어서 죽은 왕과 그의 ka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망자의 영혼이 되살아나 하는 일은 향제사에 드려진 향을 음미하고 그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다. 향은 생명이고, 생명을 복구시키는 힘이다.²⁴⁾ 블랙맨(Blackman)은 향의 이러한 각별한 힘을 "성례적" 힘이라 부른다.²⁵⁾ 「아몬의 장례」에 따르면 건조해진 망자의 시신에 향과 기름을 더함으로써 생명의 진액을 확보하는 과정은 "자신의 진액을 복원시켜서가 아니라 오시리스 신의 것을 수여받음으로써 가능하다."²⁶⁾ 이 경우 향의 사용은 생명력 복구의 물리적 장치이자 상징적 표상으로 기능한다.

2) 변용

이집트 장례문헌을 살펴보면 시신에 생명력을 복귀시키는 것만으로는 거룩한 영역에 이를 수 없으며 반드시 아크(akh)이라는 존재로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프랑크포트의 설명은 이렇다:

23) 「망자의 책」 105장; 인용은 리히타임의 AEL 2.123. 필자의 사역임.

24) Bob Brier, *Ancient Egyptian Magic*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0), 240.

25) Aylward M. Blackman, "The Significance of Incense and Libations in Funerary and Temple Ritual", *ZAS* 50 (1912), 72 이하.

26) Blackman, "The Significance of Incense", 75. 블랙맨은 이 설명에서 아몬의 제의(Ritual of Amon) XII 7-10을 인용하고 있다.

죽음의 위기상황은 인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바, 무덤은 그것을 극복하는 도구가 된다. 무덤은 망자가 장례식인 사크(sakh)을 통해 변화를 체득한 아크(akh)가 되는 변혁의 과정을 증언하는 장소이다.²⁷⁾

장례와 관련된 많은 단어의 용례를 종합해볼 때, 시신의 악퐁처리는 시체의 보존을 위한 물리적 장치를 넘어 새로운 몸으로의 변혁을 가능케 하는 신비로운 기제였다.²⁸⁾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향은 본질상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²⁹⁾ 따라서 망자의 시신을 악취나는 물체로 솔직하게 그린 곳도 있지만,³⁰⁾ 천상을 향이 공기이고 향의 연기가 바람인 곳이라 묘사하는 PT 877a가 이집트 종교체계 내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향은 곧 존재의 정체성이다. 따라서 망자의 시신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 먼저 악취를 제거하고 신적인 냄새를 취득해야만 한다. 신적인 냄새는 곧 신의 영역에서 신분증의 기능을 했던 것이다. PT 750a-c를 보라:

오 [망자의 이름]이여! 레(Re)앞에 가기 전 그대의 몸을 정결케 하고 향을 뿌리시오.
오늘 그대의 순수함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그대를 신들 가운데 하나로 세우시기를, 바로 오늘!

이렇게 신적 존재로 입문한 망자는 다시금 그 새로워진 존재방식을 지탱하기 위한 모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아비도스(Abydos)에서 발견된 세트스 1세(Setos I)의 묘실에서는 신으로 지위가 격상된 왕에게 매일 음식이 바

27) Henri Frankfort, *Ancient Egyptian Religion* (New York: Columbia, 1948), 96.

28) Assmann, "Death and Initiation", 138.

29) 이집트어에서 명사 *sntr* ("향")을 *ntr* ("신적 지위를 갖다") 동사와 연관짓는 해석은 A. Erman, *Die Religion der Ägypter*로 소급된다. *sntr*의 *s*-가 사역형(causative)로 작동할 수 있는 문법적 가능성은 Gardiner, *Egyptian Grammar*, 211을 참조하라. 낱센, 109으로부터 재인용.

30) PT 1790b은 망자를 위한 조사(eulogy, 좋은 소리의 통상범위를 벗어나는 탄식을 토하고 있다: "그대의 냄새는 얼마나 고약한지, 그대의 냄새는 얼마나 고약한지!"

쳐졌는데, 이 과정은 곧 그가 늘 신들의 식탁에 참여하고 신들의 향을 몸에 부었다는 신화적 표현의 현실태인 셈이다.

그가 그대에게 다가와 당신을 영접하고, 그대를 식탁으로 초대해 그의 성찬과 관유를 맛보게 하는구나. 그가 그대의 카(Ka)를 위해 향을 베푸는구나... 신들이 당신의 향을 맡는다... 그대에게 몰약을 주어 그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이제 신성한 향취로 그대를 만족시키어라.³¹⁾

향은 악취나는 시신을 세척하고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에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다. 그러나 위 본문이 그러한 물리적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닐센의 설명은 지나치게 축자적이다.³²⁾ 본문이 내용이 시신의 처리와 관련된 물리적 함수관계에 다 담길 수는 없다. 묘실 내 시신의 물성적 변화와 천상 세계에서 망자의 신격화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느끼고 믿었던 것 이상으로 날카롭게 갈라놓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독법일 터, 더구나 신들 중의 신인 아문-레(Amun-Re) 역시 매일 향을 들이키고 향으로 목욕을 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향이 다가오는구나. 신들을 위한 향수가 이리로 번져 오는구나.

그 향이 그대 아문-레에게 바쳐지도다...

그 향이 그대를 씻기고, 그대를 치장하는구나...³³⁾

이집트 신전 안에 모셔진 신들은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아침에 기상하는 사람을 “밤새 죽은 듯 자고 아침에 되살아난다”고 표현할 수 있듯이 신들도 아침마다 다시 일어나 향을 공급받고 숭배자의 인사를 받아

31) Rosalie David, *A Guide to Religious Ritual at Abydos* (Warminster: Aris & Philips, 1981), 96.

32) Nielsen, *Incense*, 11.

33) Nielsen, *Incense*, 11.

야 온전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³⁴⁾ 이와 같이 신화적 평면에서 상상된 죽음과 깨어남의 순환 과정이 신전의 물리적 공간에서는 향의 제사로 집약되어 제의화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삶과 죽음, 인간과 신들 간에 일어나는 영역의 전이, 경계 이동을 제의에 나타낼 최적의 매체가 향이었기 때문이다.

3) 여정

신적 존재로 변화된 망자는 여전히 천상계로의 노정을 앞두고 있었다. 아스만(Assmann)이 명쾌히 설명했듯이 죽음과 미이라화 그리고 매장은 천상으로의 노정을 맛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³⁵⁾ 이집트의 장례 문서들을 보면 향이 탈 때 올라가는 연기가 신격화된 망자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동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러한 “탈 것”의 좀 더 현실적인 비유로 사다리(PT 390a, 479a 등), 계단(PT 365a), 나룻배(PT 337a-d, 367b) 등도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온전한 의미에서 비유일 뿐, 장례의 전 과정을 걸쳐 실제로 현장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향과 연기뿐이다. 시공 안에서 퍼지고 섞이는 향과 연기는,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계와 신계라는 두 영역을 놓고 그 경계선의 혼재와 뭉개짐을 묘사하려는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비유의 수레(vehicle)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제 말하라: 불이 준비되었네, 불꽃이 타오르네.

불 위에 향이 놓였네, 향이 빛나는구나.

그 향기가 (이름)에게 다가오네. 오 향이여!

그대들의 향이 (이름)에게 다가오도다, 오 신들이여!

(이름)의 향이 그대들에게 다가가는도다, 오 신들이여!

(이름)이 그대들과 함께 있기를, 오 신들이여!

34) Blackman, "The Significance of Incense", 73.

35) Assmann, "Death and Initiation", 137.

그대들이 그와 함께 하기를, 오 신들이여!

(이름)이 그대들과 함께 살기를, 오 신들이여!

그대들이 그와 함께 살기를, 오 신들이여!³⁶⁾

체취는 그것을 소유한 개체의 연장이다.³⁷⁾ 사람이 죽어 신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신비로움을 체취의 번짐과 소멸로 노래한 이집트인들의 심상과 언어는 이스라엘 신앙을 고백하는 언어와 시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5. 신임재의 표지로서의 향—이스라엘 성전 제의에서 삼땀(ִּטְמוֹת) 향의 사용

냄새가 개인의 영역을 가리키는 표지가 된다는 인류학적 관찰은 이스라엘 성전 제의에서 향의 사용규칙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³⁸⁾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 임재를 중심으로 한 등급구조(graded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³⁹⁾ 지성소의 구조물들에는 순금을 입혔고, 동심원적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치가 덜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구성원리는 단지 사용된 재료의 문제만이 아니어서, 그 공간의 접근자격을 두고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성소에는 제사장, 성전 뜰에는 레위인, 진에는 일반 회중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⁴⁰⁾ 흥

36) PT 376a-377c, 사역.

37) 자이레의 야카(Yaka)족은 성교행위를 “서로의 냄새 맡기”라 부르고 연인들이 “피차 냄새를 나게 하고 냄새를 가져간다”고 표현한다. 그들에게 냄새는 곧 개인의 경계선이며, 두 사람간의 친밀한 결합은 그 냄새의 경계선을 피차 넘어서고 섞는 경계이동의 행위로 이해된다. Howes, "Olfaction and Transition", 413, n.1.

38) 이스라엘 제사제도 가운데 ִּטְמוֹת(질리땀/화목제)의 집행절차에서 이러한 표지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부분과 사람이 가져가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부분에 향을 첨가함으로써 둘을 명확히 구별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놓고 사람이 음식으로 쓸 부분은 향을 섞을 필요가 없었으리라는 실용주의적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야 할 뉘에 향을 섞음으로써 피조물과 하나님의 근원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상징성이 더 근원적 이유였을 것이다.

39) 이스라엘 율법 내에서 이러한 등급구조에 대한 포괄적 서술로 Philip P. Jenson, *Graded Holiness: a Key to the Priestly Conception of the World* (JSOTS 106; Sheffield: Sheffield, 1992)를 참조하라.

40) 이러한 공간구조에 관한 간략한 정리는 김경열,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29-60을 참

미롭게도 이러한 등급구조가 향의 사용에서도 관찰되는데, 성전 뜰의 제단에서는 **קָנָף** (민하/소제)의 향이 드러졌지만 지성소에서는 **סַמִּים** (삼밌/향품) 향만이 허용된 것이 그 실례이다. 이러한 향의 사용은 성전 부속공간에서 특정 지점의 기록함의 정도가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로부터의 거리에 상응한다는 논리에 부합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제의체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스라엘 고유의 특징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거룩한 공간 표지로서 삼밌의 가치가 고급스런 향재료라 아니라 독특한 배합비율에 있다는 사실이다. 삼밌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세 가지 재료를 섞어 만들어지는데, 그 배합과 제조에 관한 규례는 매우 엄격하다. 출애굽기 30장 34-38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수한 삼밌향의 제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סַמִּים**) 즉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가져다가 그 향품들(**סַמִּים**)을 순수한 유향에 섞어라. 분량은 저마다 같게 하고 그 재료들로 향 제조법을 따라 향을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 향 일부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어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네가 만들 향은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제조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 냄새를 즐기려고 동일한 것을 만드는 자는 누가 되었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출 30:34-38 사역)

현재까지의 지식이 허용하는 한, 본문에 기록된 배합재료들은 특별한 고급재료가 아니다. 삼밌의 특이성은 그 구성성분들을 지정된 방식으로 섞어 조제하는 제조법과 그것의 용처가 특별히 구별된다는 사실이다. 삼밌 향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제한규정을 동반한다. 이 향은 오직 야웨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조하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한 향을 사적인 용도에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⁴¹⁾ 여기서 거룩한 것은 곧 구별된 것이라는 본래적 의미가 강렬히 부각된다.⁴²⁾ 또한 오직 제사장들만이 이 향료를 취급할 수 있고, 지성소에서는 오직 이 향료만을 사용할 수 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휴대용 향료에 담아들이는 향 역시 삼밌이어야 했다(레 16:12).⁴³⁾ 셋째, 오직 이 향료만이 야웨의 이름으로 명령된 처방이다. 이처럼 삼밌은 그 수용자의 배타성, 취급자의 배타성, 그리고 처방전의 배타성이라는 삼중적 제한규정에 의해 여타 향으로부터 구별된다.

6. 하나님의 현묘한 임재

향의 상징성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대속죄일(Yom Kippur)에 야웨 하나님은 향을 태운 연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나 그 연기는 동시에 하나님 임재의 초점인 언약케 덮개(히, 카포렛 כַּפֹּרֶת)를 가리는 베일의 역할도 수행한다(레 16:13).⁴⁴⁾ 닐센은 향을 태움으로써 신현현(theophany)을 촉진하는

-
- 41) 이 금지조항을 어긴 자에게 가해지는 “끓어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당 문맥에서는 알기 어렵다. 구약 성서에서 “끓어짐” 형벌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논구로는 노세영, “끓어짐(Kareth)의 형벌의 의미”, 『구약논단』 55(2015), 9-32를 참조하라.
- 42) 가정하자면 만약 이 향이 하나님 앞의 봉헌 전용물이 아니었을 경우 어느 예배자가 성전에서 이 향을 맡으면서 같은 향을 사용하는 자신의 연인을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 특정한 향이 오직 하나님의 존재와만 연결되어 기억되기를 원하셨다. 냄새가 갖는 기억소환능력(evocative power)은 매우 각별한 것이어서 많은 문학작품의 모티프로도 쓰인다.
- 43) 하란은(*Temples and Temple Service*, 244) 이 제약을 공간의 거룩성에만 연결시키지만, 대속죄일 의례는 공간(지성소)과 더불어 취급자(오직 대제사장)와 일자(일 년 중 대속죄일 하루)를 아우르는 복합적 독점성을 함의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 44) 카포렛은 종종 속죄의 장소라는 이해에 기초해 속죄소(개역한글, 개역개정), mercy seat(KJV, NRSV) 등으로 번역되어 왔지만, 물리적 구조상으로는 단지 언약케의 뚜껑 부분을 지칭하며, 속죄과정의 대표성을 담보할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다. 근래 역본은 덮개(새번역), 속죄판(공동번역), cover(NIV)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성기문은 카포렛의 함의와 번역용례를 소개하면서 그 신학적 실체는 “단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를 상징”하는 데 있다고 요약한다(“하타트 제의의 피와 고기의 의미와 기능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 2018], 166). 히브리어 *k-p-r* 단어군이 지시하는 제의행위의 의미가 ‘속죄’인지 ‘정화’인지에 관해서는 방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정희경은 구조비평과 텍스트언어학적 분석에 근거해 “포괄적인 Kipper 행위”는 ‘죄사함’, 협의의 피제에는 ‘성소 정화’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정희경, “Kipper 행위” 개념을 통해 본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해 사람을 보호하는 두 기능은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을 야기한다면서 이러한 모순은 두 가지 전승이 레위기 16장 본문에 융합된 결과이며 향료는 본래 하나님의 위협한 임재로부터 예배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 제물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한다.⁴⁵⁾

그러나 이스라엘의 향 사용에 관한 이제까지의 관찰을 종합할 때, 닐센이 모순이라 부른 현상은 사실상 향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매개적 역할과 그 임재를 가리는 보호막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서 발생한 복합성과 긴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균형 잡힌 “향의 신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향의 계시적 기능의 대척점에 서는 차폐적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레위기 16장 13절은 카포렛 위에 연기가 덮임으로써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생명이 보존된다고 명시한다. 즉 향을 태운 연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의 안전을 위한 차폐막으로 기능한다는 뜻이다.⁴⁶⁾ 향단(incense alter)의 위치가 이러한 상징성을 뒷받침해준다. 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 하나님의 임재를 품으며 감추는 또 하나의 베일 기능을 했다. 이것은 성막-성전과 법궤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집약적으로 상징하는 것과 대비된다.⁴⁷⁾ 이러한 이중기능 혹은 모호성은 성경본문의 표현 혹은 묘사의 부족함이 아니라 향의 사용이 일으키는 물리적 현상 자체의 내적 복합성과 관련이 있다. 향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가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가리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에게 크나큰 복이지만 심각한 위협이기도 하다는 양면성을 잘 드러내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가 사람들 가운데 머물

속죄제(贖罪祭)의 이중적 기능연구에 대한 구조비평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구약논단』 59 (2016), 10-37.

45) Nielsen, *Incense*, 72.

46) C. Houtman, "On the Function of the Holy Incense (Exodus xxx 34-8) and the Sacred Anointing Oil (Exodus xxx 22-33)", *VT* 17/4 (1992), 463.

47) 성막과 법궤의 구조와 상징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밀도 있게 다룬 아래 논문들을 참조하라: 서명수, "성막과 법궤의 기능", 『구약논단』 18 (2005), 73-83; 이경숙, "솔로몬 성전과 법궤", 『구약논단』 18 (2005), 30-52; 정중호, "회막 전승의 역동성과 법궤", 『구약논단』 18 (2005), 14-29.

기를 기뻐하시지만 신-인간의 근원적 차이로 인한 “경계선”을 지키도록 요구하신다. 이러한 신학적-종교적 체험과 믿음을 물리적으로 증언하는 데 후각만큼 적절한 감각은 없다. 후각은 생생하고 연상유도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모호함과 현묘함을 상징하기에도 적절하다.⁴⁸⁾ 하나님 백성 중에 거하는 하나님 임재는 늘 현묘해야 마땅했다.

7. 나가는 말

후각은 묘사와 명명은 물론 그 소재를 특칭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경계 감각(liminal sense)이다. 후각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향(incense)은 매우 복잡적이고 애매하면서도 풍성한 함의를 담기 적절한 제의적 도구로 쓰였다. 이스라엘의 향 사용과 가장 근접하는 패턴과 역사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집트의 경우는 일상적 사용보다도 장례와 관련된 향 사용을 통해 풍성한 상징성을 구현했다. 그러나 향의 움직임과 물성을 망자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 불멸의 존재가 되는 과정의 반영이자 그 과정을 수행하는 매개체로 보는 이집트의 상징체계는, 유일신주의와 신-인간의 절대적 간극을 전제로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체계에 그대로 흡수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신적 영역의 표지이자 신-인간의 소통매체라는 향의 지시관계를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야웨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품는 방식으로 제의체계에 반영했다. 향이야말로 강렬한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국지화할 수 없고, 모호하지만 엄연히 현존하며, 은혜와 더불어 위험도 매개하는 하나님의 현묘한 임재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매개물이었기 때문이다.

48) 현묘함이 elusive의 등가어는 아니지만, 현묘함의 개념설정 과정에서 Samuel Terrien, *The Elusive Presence: Toward a New Biblic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8)의 도움을 받았다.

8. 참고문헌

- 김경열,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김구원 외, 「고대근동문학선집」, 서울: CLC, 2016. [=ANETK]
- 노세영, “끊어짐(Kareth)의 형벌의 의미”, 「구약논단」 55 (2015), 9-32.
- 서명수, “성막과 법궤의 기능”, 「구약논단」 18 (2005), 73-83.
- 성기문, “하타트 제의의 피와 고기의 의미와 기능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 2018.
- 이경숙, “솔로몬 성전과 법궤”, 「구약논단」 18 (2005), 30-52.
- 정중호, “회막 전승의 역동성과 법궤”, 「구약논단」 18 (2005), 14-29.
- 정희경, “Kipper 행위 개념을 통해 본 속죄제(קַפָּרָה)의 이중적 기능연구에 대한 구조비평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구약논단」 59 (2016), 10-37.
- Assmann, Jan, "Death and Initiation in the Funerary Religion of Ancient Egypt", William K. Simpson(ed.), *Religion and Philosophy in Ancient Egypt* (New Haven: Yale, 1989), 135-159.
- Baines, John, "Society, Morality, and Religious Practices", Byron E. Shafer(ed.), *Religion in Ancient Egypt* (Ithaca: Cornell, 1991), 123-200.
- Berlin, Brent & Paul Kay,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Blackman, Aylward M., "The Significance of Incense and Libations in Funerary and Temple Ritual", *ZAS* 50 (1912), 69-75.
- Brier, Bob, *Ancient Egyptian Magic*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0).
- de Vaux, Roland, *Ancient Israel* (New York: McGraw-Hill, 1961).
- Douglas, Mary,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6).

- Foster, Benjamin R., *From Distant Days: Myths, Tales, and Poetry of Ancient Mesopotamia* (Bethesda, MD: CDL Press, 1995).
- Fox, Michael V.,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 Gell, Alfred, "Magic, Perfume, Dream ...", I. M. Lewis(ed.), *Symbols and Sentiments: Cross-Cultural Studies in Symbolism* (London: Academic Press, 1977), 25-38.
- Green, Deborah, *The Aroma of Righteousness: Scent and Seduction in Rabbinic Life and Literature* (University Park, PA: Penn State University Press, 2014).
- Haran, Menahem, "The Uses of Incense in the Ancient Israelite Ritual", *VT* 10 (1960), 113-129.
- , *Temples and Temple-Service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78; reprint,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5).
- Hess, Richard, "Floral Imagery", Tremper Longman III and Peter Enns(eds.),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Poetry, Wisdom, & Writings* (Downers Grove, IL: IVP, 2006), 218-223.
- Houtman, C., "On the Function of the Holy Incense (Exodus xxx 34-8) and the Sacred Anointing Oil (Exodus xxx 22-33)", *VT* 17/4 (1992), 458-465.
- Howes, David, "Olfaction and Transition: an Essay on the Ritual Uses of Smell",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24/3 (1987), 178-194.
- Jenson, Philip P., *Graded Holiness: a Key to the Priestly Conception of the World* (JSOTS 106;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Press, 1992).
- Keel, Othmar, *The Song of Songs* (Continental Commentaries Series;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4).

- Kovacs, Maureen G., *The Epic of Gilgamesh* (Redwood City, CA: Stanford, 1985).
- Lichtheim, Miriam, *Ancient Egyptian Literature*. vol. 1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 , *Ancient Egyptian Literature*. vol. 2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 Mercer, Samuel A. B., *The Pyramid Texts*. 4 vols.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52).
- Morenz, Siegfried, *Egyptian Religion*. Trans. Ann E. Keep (Ithaca: Cornell, 1973).
- Nielsen, Kjeld, *Incense in Ancient Israel* (VTSup 38; Leiden: Brill, 1986).
- , "Ancient Aromas", *Bible Review* 7/3 (June 1991), 26-33.
- Penner, Jeremy, *Patterns of Daily Prayer in Second Temple Period Judaism* (Leiden: Brill, 2012).
- Pritchard, James,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ANET]
- Talmon, Shemaryahu, "The Emergence of Institutionalized Prayer in Israel in the Light of the Qumran Literature", *The World of Qumran Within* (Jerusalem-Leiden: Magnes-Brill, 1989), 200-243.
- Terrien, Samuel, *The Elusive Presence: Toward a New Biblic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8).
- Turner, Victor, "Betwixt and Between: the Liminal Period in Rites de Passage", *The Forest of Symbols* (Ithaca: Cornell, 1967), 93-111.
- Yong, Ed, "Why Do Most Languages Have So Few Words for Smells?", *Atlantic* (November 6, 2015). <https://www.theatlantic.com/science/archive/2015/11/the-vocabulary-of-smell/414618/>

검색어

향

희생제사

경계감각

신 임재

삼땀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Use of Incense in the Ancient Egyptian and Israelite Rituals

Sun Myung Lyu, Ph.D.

Assistant Professor, Divinity School

Baekseok University

Olfaction, namely the sense of smell, is a liminal sense that is difficult to name, describe, or localize. This difficulty is also what makes incense a complex, ambiguous, and richly implicative ritual means. The ancient Egyptian practices regarding incense are by far the closest precedence of and comparative materials for the ancient Israelite counterparts, and they actualized the most intricate symbolisms through its funerary use of incense. The Egyptian symbolic system, however, could not be absorbed into the Israelite faith, because the latter was founded upon monotheism and the ontological chasm between the divine and the human.

Israel accepted the significance of incense as a marker of the divine realm and a communicative medium between God and man, and accommodated it into Hebrew ritual system in ways that would allow at once the transcendence and immanence of Yahweh.

www.kci.go.kr

This was fitting because incense was the best conduit to mark the elusive presence of God, which, although overwhelming, is not to be localized, which is both ambiguous and conspicuous, and which is conducive of danger as well as grace.

Keywords

incense

sacrifice

liminal sense

divine presence

sammim

- 투고일: 2018년 10월 15일
- 심사일: 2018년 10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11월 10일

www.kci.go.kr